

## 말더듬(Stuttering) 환자에 대한 보툴리눔독소의 주입 효과

최홍식\*, 김영호, 표화영, 홍원표

연세의대 이비인후과, 음성언어의학연구소

말더듬(stuttering)이란 언어-운동조절의 장애를 일으키는 운동장애(movement disorder)의 일종으로 혀, 입술, 후두를 이루는 근육과 호흡근육 등의 시간적인 부조화(inappropriate timing)로 특징지어지는 유창성장애(fluency disorder)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여태까지 행동치료(behavioral treatment), 정신과적인 치료(psychiatric modalities)등이 치료의 방법으로 이용되어왔으며, 초기에는 비교적 좋은 반응을 보이나 지속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 말더듬이 국소적 근긴장이상증(focal dystonia)의 한 형태인 경련성발성장애(spasmodic dystonia)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보툴리눔독소(Botox)를 주입한 결과 어느 정도의 호전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기에, 저자들은 기존의 치료법에 큰 반응이 없었던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Botox를 주입하여(5-8 U) 주입 4주 후에 주입 전 상태와 비교하여 개선도 및 자기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80%의 환자에서 +1 이상의 개선을 보였으며, 70%의 환자에서 +1 이상의 자기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나, 정상에 가까운 개선을 보이지는 못하였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